추가 이자부담만 연 552억… 서민가계 직격탄

한은 금리 0.25%P 인상…광주·전남 대책마련 시급

추가인상 시사…中企 39% "하반기 자금 조달 곤란"

광주·전남 가계가 지난 9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 552억원에 달하는 추가 이자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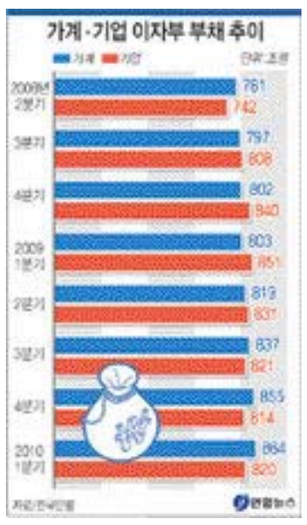
또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과 경영 자립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비롯한 한계기업들이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전남 이자부담 552억원 증가=지역금융권의 분석에 따르면 4월 현재 광주·전남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광주 11조8022억원, 전남은 10조2892억원으로 총 22조914억원이다. 이 금액을 인상된 기준금리로 환산하면 연간 552억 2900여만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한국은행의 집계결과 전국적으로도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의 이자부 부채는 863조6000억원이었다. 비금융 법인의 이자부 부채는 8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빚 원금은 모두 1683조4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또 기업 가업대출 가운데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가 전적으로 중소기업에



몰려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대출 약 520조원 가운데 약 83%인 430조원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나간 대출이었다.

◇ "중기 하반기 자금압박 우려"=중소제조사 10곳 중 4곳이 하반기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인상돼 중기자금난의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236개 중소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올해 하반기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업체는 전체의 38.6%에 달했다.

특히 상당수 업체는 금리 인상을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신용보증이나 대출의 만기연장이 종료될 때 제일 걱정하는 점(복수응답)으로 '대출금리 인상(53.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신규 은행 대출 곤란(30.2%)', '은행의 대출 연장 거절(24.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 당국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연장"= 감독 당국은 주택담보 대출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한 대출 비중이 큰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도록 은행이 상환 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의 충격을 덜 받는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상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마침 이달부터 자동 만기 연장이나 보증비율 상향 등 비상시 지원 조치가 정상화돼 금리 인상이 커다란 경영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 만기 연장은 은행과 중소기업이 협의해 정할 문제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이 괜찮다면 채권 은행이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부동산·건설업계 "뒤통수 맞은 기분"

이자부담에 집값하락 지속·청약심리도 움츠러들 듯

건설·부동산 업계는 기준금리 전격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대출금리가 오르게 돼 은행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이 증가해 집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비용이 늘어나면 청약심리도 움츠러들게 마련이다.

여기에 미분양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분양 계약자들에게 경쟁적으로 적용한 중도금 및 잔금 무이자 혜택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의 자금난도 가중될 게 뻔하다. 땅을 사놓고도 분양을 하지 못하면 매출이 생기지 않고 내야 할 이자만 쌓이는 탓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기대했던 건설업계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내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의 이자부담증가로 집값 하락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달 초 내집을 마련한 직장인 김모(38)씨는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부담이 걱정된다"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른다는데 괜히 무리해서 집을 장만한 게 아닌지 후회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기대했던 건설사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여풍당당'

과장급 36명중 22명 등 승진자 35% 차지

광주은행에서 '여풍(女風)'이 거세다.

1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시행한 정기인사에서 직급별 승진자 97명 가운데 35%에 달하는 34명이 여직원으로 나타났다.

또 과장급인 4급 승진자 총 36명 가운데 여직원이 22명으로 남자 직원보다 8명이 더 많았다.

이번 승진자 중에는 3급 여성 부지점장 승진도 3명이 포함돼 지난해 말 첫 1급 여성 점포장이 탄생한 데 이어 여성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지난해 12월 인사에서는 4급 이상 승진자 24명 가운데 절반을 여성이 차지했으며 최근 PB센터 재무상담역이던 정순자 부부장을 여성지점장(매곡동지점장)으로 발탁하는 등 광주은행에서 여성들이 크게 약진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차 보험 무사고 할인율

5~10%P 확대 검토

금융당국은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최대 할인율을 현재보다 5~10%포인트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현황과 업계의 자구노력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대 60%인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65~70%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콤한 향기' 곡성 멜론 본격 출하 11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한 직원이 곡성 멜론을 선보이고 있다. 이 멜론은 카로틴이 많이 함유돼 있고 당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개당 6000원.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기존의 박스권 흐름 지속될 듯

'수혜주 중심' 제한적 접근해야

■ 주간 증시 포커스

삼성전자의 5조원 영업이익 달성으로 상징되는 국내경기의 회복세에 대해 한국은행이 마침내 금리인상 카드를 빼들었다.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현재 금리수준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금리인상 자체에 대한 공포를 키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과거 금리인상 기간은 경기팽창 국면과 맞물려 증시가 상승추세를 나타낸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타 국가에서도 과거 장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나타났었던 흐름들이다.

특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보통 경기흐름에 앞선 조치이기 때문에 금리인상 초기에서는 향후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점칠 수 있는 것 또한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반적 상황을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이후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기조는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특수적인 상황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국내 경기가 회복세의 정점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지난 1999년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도입한 이후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동향과 그에 따라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밀접하게 연동돼 왔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국내 경기동행지수가 바닥을 쳤던 지난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동결돼 왔고, 이미 경기선행지수가 작년말 이후로 5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순조로운 경기팽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

게다가 유로존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긴축정책이 하반기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에 걸림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금리인상을 향후 국내경기의 본격적인 팽창국면으로의 진입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으로는 금리인상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과 더불어 금융완화 기조의 유지를 병행시킴으로써 하반기 추가 금리인상이 결정되더라도 절대적인 저금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증시의 영향력은 중립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당분간 지수는 1,700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말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며 1,720선을 넘어선 수준에서는 박스권의 고점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적극적인 매수대응은 어려운 시점이다. 은행주 등 금리인상 수혜주 및 항공 등 원화강세 수혜주 중심의 제한적 접근을 권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광주국세청 부가세 전자신고 합동창구 운영

26일까지 휴무일도 가능

광주지방국세청은 201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옛 서광주세무서에 '전자신고 합동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12일부터 26일까지이며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업자는 물론 타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휴일 근무조를 편성해 휴무일에도 납세신고를 받고, 전자신고 합동창구(062-375-2202, 2203)도 운영한다.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청과 광주지역 3개 관서는 관내 거주 사업자에게 부가세 관련 문자서비스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